

우리 국민은 안보 불감증에 걸렸는가?

Online Series

2016. 09.28. | CO 16-26

박주화(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4차, 5차 핵실험 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2016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 역시 안보 불감증을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국내적 요소로 꼽고 있다. 안보 불감증이란 무엇인가? 국민들이 안보 불감증에 걸렸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행동을 어느 수준으로 보여야 안보에 민감한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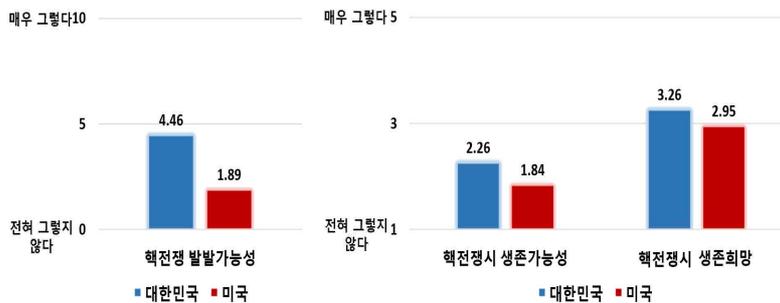
소련의 핵위협에 대한 미국 국민의 태도

2차 세계 대전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막을 내렸다. 이후 미국 심리학자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핵전쟁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태도였다. 심리학자들의 결론은 명료하였다. 미국 국민은 핵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생존할 확률도 낮고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동시에 미국 국민은 소련의 핵 위협을 걱정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며, 소련의 핵 위협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즉, 미국 국민은 핵전쟁이 야기할 치명적 결과를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핵전쟁은 그들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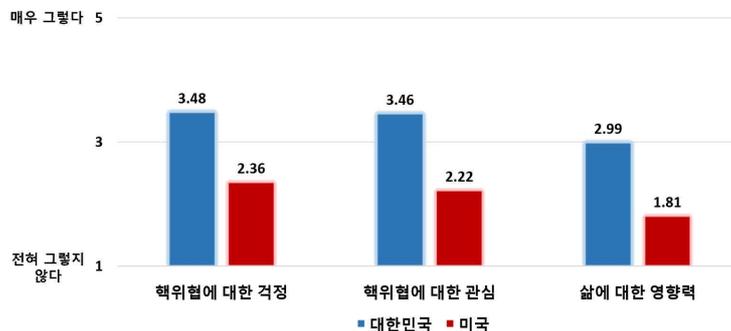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의 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의 태도는 소련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 국민의 태도와 달랐다. 해밀턴(Hamilton) 등이 미국 성인남녀 8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련의 핵위협에 대한 태도와 우리 국민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국민이 평가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은 미국 국민의 두 배 이상이었다(그림 1). 또한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 위협을 걱정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핵문제가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그림 2). 둘째, 우리 국민의 걱정 수준과 관심 수준은 척도의 중간 수준인 3점을 상회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 국민과의 상대적 비교의 차원, 척도상 응답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 비교의 차원 모두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초래한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핵 전쟁에 대한 한국국민과 미국국민의 인식과 생존희망



<그림 2> 핵 위협에 대한 한국국민과 미국국민의 태도



안보 불감증의 원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국민은 스스로 안보 불감증에 걸렸다고 생각하는가? 첫째, 인지 부조화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국민이 보이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행동적 반응 수준은 (삶에 대한 영향력, 2.99)은 정서적 반응(걱정 수준, 3.48)과 인지적 반응(관심, 3.46) 수준보다 낮다. 즉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은 것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행동을 바탕으로 자신의 모습을 판단한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걱정하며 관심이 많다. 하지만 구체적 행동이 없는 자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없는 타인을 보면서 ‘북핵 위협에 걱정을 하는 것 같지만 행동이 없는 것을 보니 나는 북핵에 걱정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없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마음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지만 행동은 직접적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인지 부조화의 덫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둘째, 도덕적 죄책감의 산물일 수 있다. 우리 사회와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해 행동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도발로 야기된 엄중한 상황에서 공동체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는 윤리적 규범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본인의 모습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스스로를 안보 불감증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안보 '불감(不感)'증이 아닌 안보 '무력(無力)'증, 즉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관심과 걱정이 많지만 상황을 변화시킬 행동과 능력이 없음을 느끼고 있음에도 말이다. 우리의 안보를 타국인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할수록 자신에게 느끼는 무력감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동맹의 딜레마인 것이다.

안보 무력증의 위험

안보 무력증은 적어도 네 가지 점에서 위험하다. 첫째, 현상의 왜곡을 초래한다. 안보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걱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스스로를 안보 위협 요소로 지목하게 되는 것이다. 현상의 왜곡은 정책목표 설정과 가용수단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안보에 무력감을 느끼는 국민을 대상으로 안보에 무관심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개발·추진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둘째, 포퓰리즘에 취약성을 드러낸다. 사람이 위협에 노출되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일단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력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핵보유론', '전술핵 배치론', '대화협상론' 등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제안들을 “일단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역시 국민들의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북정책의 전략적 효용을 무시하고 “일단 지르고 보자”식의 제안을 할 수 있다.

셋째, 안보 무력증은 안보 불감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 마음과 행동의 불일치 과정에서 행동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추론하는 인지부조화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스스로 안보에 걱정도 관심도 없다는 태도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 국민 개인차원에서 현 핵 위협 국면을 변화시킬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면 우리 국민도 미국 국민의 소련 핵위협에 가졌던 태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안보 무력증은 통일인식에 악영향을 미친다.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사람은 안보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고자 할까? 첫 번째는 분단 현실을 극복하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통일과 레짐 체인지는 방식은 다르지만 북한과 결합한다는 면에서 분단현실 극복을 추구한다. 두 번째 방식은 분단 현실을 강화하는 것이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부정하고 북한체제를 인정하면서 남남으로 살자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전쟁 위협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즉 안보 무력감이 높을수록 분단 고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현상을 변경하는 분단극복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분단고착이 더 현실적이며 단기적 위협제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대응방향

먼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도덕적·규범적 요구를 멈추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충분히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행동이 국면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역시 알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해 국민 개인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현 안보상황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1) 자세한 분석은 2016 남북통합 국민의식조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두 번째, 국민들이 느끼는 전쟁위협감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한 안보 불안은 가중되고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전쟁을 역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한 때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특정한 안보의 신뢰성을 국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통일, 분단의 극복 의무를 생각한다면 더욱더 그러하다.

세 번째,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북핵 정보를 접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적어도 핵문제에 있어서 언론을 신뢰하고 있다(3.22점/5점, 1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 5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 핵문제에 대해 일회성 보도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냉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비판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본질일 것이다.

네 번째, 싱크탱크들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현 안보위기는 북한의 핵위협에 기인하지만 그 파급효과는 핵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통일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이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현 상황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창의성 연구의 대가인 미국심리학자 스톤버그는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을 “애매함을 견디는 힘”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다. 불확실성을 해소를 위해 행동하지 않음을 비난하는 안보 불감증 논란은 창의적인 북핵 해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국민, 언론, 싱크탱크 그리고 정부 모두에 해당하는 말일 것이다. ©KINU 2016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